

대학생 도박경험자의 스트레스 및 도박변화동기가 단도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융복합 영향 연구

최정현¹, 김정숙^{2*}, 김성의²

¹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세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Stress and Gambling Change Motivation on Gambling Abstinence Self-Efficacy among College Students Using Gambling

Jung-Hyun Choi¹, Jeong-Suk Kim^{2*}, Seong-Ui Kim²

¹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Namseoul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aekyung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 도박경험자의 단도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융복합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C시 및 G시에 소재한 대학교 2곳에서 도박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서술적 조사 연구이며 빈도분석,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상관관계분석에서 스트레스($r=-.314, p<.001$), 도박변화동기($r=.272, p=.001$)는 단도박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도박변화동기가 높을수록 단도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에서 단도박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트레스($\beta=-.29, p<.001$), 도박변화동기 ($\beta=.25, p=.003$) 순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도박경험자들의 단도박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및 도박변화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도박예방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대학생, 도박, 스트레스, 도박변화동기, 단도박 자기효능감,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dentify the convergence factors that affected the gambling abstinence self-efficacy among college students using gambling. The participants were 134 students with gambling experience at two universities in C city and G 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tress($r=-.314, p<.001$) and gambling change motivation($r=.272, p=.001$)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gambling abstinence self-efficacy in correlation analysis. The greatest influence on gambling abstinence self-efficacy i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identified in order of stress($\beta=-.29, p<.001$), gambling change motivation ($\beta=.25, p=.003$).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 gambling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which can manage stress and strengthen the gambling change motivation of college students using gambling is needed to improve the gambling abstinence self-efficacy.

Key Words : College students, Gambling, Stress, Gambling change motivation, Gambling abstinence self-efficacy, Convergence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R1D1A1B03028538).

*Corresponding Author : Jeong-Suk Kim(nursekim0305@hanmail.net)

Received April 30, 2019

Revised May 22, 2019

Accepted June 20, 2019

Published June 28, 2019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만20세 이상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국내 사행산업이 융실태를 조사에 의하면, 사설 사행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016년 0.2%에서 2018년 7.9%로 크게 상승하였다. 한편, 20대의 문제군 비율은 2.5%로 전체 조사 대상자의 문제군 1.1% 대비 2배 수준으로 20대의 도박문제에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도박중독예방치유기관을 이용한 상담자 비율에 있어서도 20대의 비율이 2008년 10.5%, 2011년 19.1%, 2014년 25.1%, 2017년 29.0%로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2,3]. 성인 이전의 도박활동 경험률에 관한 2018년 조사에서도 20대가 33.7%로 30대의 25.5%나 40대의 25.3%, 50대의 27.6%, 60대 이상의 22.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실제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2011년 도박중독 유행률이 11.1%로[4] 성인인구의 2010년 6.1%나 2012년 7.2%보다 높은 편이었다[5,6]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대학생의 도박문제가 일반인보다 더 심각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미국 대학생 중 문제도박자 또는 병적 도박자로 분류되는 비율 4~8%로 일반인의 2배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7].

대학생들의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이 참여한 도박의 종류는 로또구입, 돈내기, 화투와 카드도박, 복권, 인터넷 도박, 스포츠 토토로 나타나고 있다[4]. 스포츠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초기에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오락처럼 즐기다가 점차적으로 베팅 액수 및 빈도를 높여서 불법적 스포츠 도박 구매나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8,9].

대학생은 학점 취득에 대한 부담감, 비싼 등록금 마련을 위한 압박감, 부모의 맹목적 기대와 경쟁적인 취업 구조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10-12].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충동적으로 온라인 도박 게임에 몰두하거나 스포츠 토토에 베팅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고, 빠지는 이유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적응적 대처를 하기 때문이다[13,14]. 이처럼 도박행위의 기저에는 스트레스가 내포되어 있어 도박 중독의 예방에 스트레스 관리가 포함되어야 한다[15].

도박자들의 변화동기란 도박에 빠져있는 현상태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행동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루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16].

도박자들은 늘 양가감정적 상태에 있는데 도박을 끊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강렬한 재미와 보상으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변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성공적인 회복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17]. 도박중독의 성공적 회복을 예측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단도박 자기효능감이 있다. Bandura와 Schunk(1981)는 자기효능감이란 특정 업무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 수행하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해내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라고 하였다[18]. 따라서 단도박 자기효능감은 도박에 대한 충동이 있는 상황에서 도박을 하지 않을 자신감을 의미한다[19].

최근 대학생의 도박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도박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방안으로 개인의 인지적,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들을 개선시켜 자기통제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보고되기는 하였으나[20], 아직 단도박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도박경험자의 단도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건강한 대학생활을 위한 융복합적 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도박경험자의 단도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스트레스, 도박변화동기, 단도박 자기효능감을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단도박 자기효능감 관련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단도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 도박경험자의 스트레스, 도박변화동기의 차이를 파악하고, 변수간의 관계 및 단도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융복합적 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C시 및 G시에 소재한 대학교 2곳의 도박 예방 캠페인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는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수집하였다. 총 240부를 배포하였으나 225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 15부와 도박 경험이 없다고 응답된 76부를 제외하고 도박 경험이 1회 이상이라고 응답된 134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사전에 설명한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자를 참여시켰다.

2.3 연구도구

2.3.1 스트레스 척도

스트레스는 Cohen[21] 등이 개발한 것을 한국 실정에 맞도록 변안하고,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22].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긍정문항만 사용하였다. 스트레스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Park 등[22]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스트레스 지각의 Cronbach's alpha 값이 .7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2.3.2 도박변화동기 척도

도박변화동기(Stages of change readiness and treatment eagerness scale)는 Miller[23]가 개발한 것을 한국어로 변안한 한국판 도박변화동기 척도(K-SOCRATES_G)[24,25]를 사용하였다. 총 문항수 19개 중 양가성 변화동기를 사용하였다. 양가성 변화동기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도박문제해결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8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6 이었다.

2.3.3 단도박 자기효능감 척도

단도박 자기효능감 (Gambling abstinence self-efficacy)은 Hodgins 등[19]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단도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8 이었다.

2.4 윤리적 고려

대학생 도박예방 캠페인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설문조사에 참여시켰다. 설문조사 참여 자격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설문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개인정보 및

응답내용의 비밀이 보장되고, 설문조사 또는 연구 도중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미리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은 뒤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남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1041479-HR-201905-005)을 받았다.

2.5 자료수집 방법

자료는 2018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도박활동 정도, 스트레스, 도박 변화동기, 단도박 자기효능감 등을 설문조사에 포함시켰다. 연구대상자 인원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으로 산출하였는데, 회귀분석방법에 의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15에서 변수 4개로 하였을 때 총 129명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에는 134명의 설문자료가 수집되었으므로 표본크기는 충분하다고 본다.

2.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version 21.0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연구변수들과 단도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단도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에서 성별분포는 남성 31명(23.1%), 여성 103명(76.9%), 학년은 1학년이 65명(48.5%), 4학년이 28명(20.9%), 2학년이 24명(17.9%), 3학년이 17명(12.7%) 순 이었고 평균연령은 23.4세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34)

Variables	Division	N	%
Gender	male	31	23.1
	female	103	76.9
School year	Freshman	65	48.5
	2nd	24	17.9
	3rd	17	12.7
	4th	28	20.9
Age		23.4±7.1	

3.2. 연구대상자의 도박 변수

Table 2에서 도박 변수를 살펴보면, 도박을 경험한 종류가 한 가지인 경우가 106명(79.1%)으로 가장 많았고, 두 가지는 21명(15.7%), 세 가지는 7명(5.2%)이었다.

많이 이용하는 도박의 종류로는 복권구입이 66명(49.3%), 고스톱, 포커 등 친목도박게임이 31명(23.1%), 오락형 온라인게임이 26명(19.4%)순으로 높았다. 소수이지만 경륜이 4명(3.0%), 카지노베팅 3명(2.2%), 스포츠평타 3명(2.2%), 불법사설도박도 1명(0.7%)이었다.

Table 2. Gambling behaviors (N=134)

Variables	Categories	N	%
Number of Kinds of Gambling	Only one	106	79.1
	Two kinds of gambling	21	15.7
	Three kinds of gambling	7	5.2
Types of Gambling	Casino betting	3	2.2
	Horse racing betting	4	3.0
	Lottery purchase	66	49.3
	Sports ToTo	3	2.2
	Illegal private gambling	1	0.7
	Fellowship games	31	23.1
	Entertainment online game	26	19.4

3.3. 스트레스, 도박변화동기, 단도박 자기효능감의 정도

Table 3에서 스트레스 정도는 2.90±.80, 도박변화동기는 4.38±.90, 단도박 자기효능감은 3.15±.91로 나타났다.

Table 3. Degree of stress, gambling change motivation, and gambling abstinence self-efficacy

Variables	M±SD	Range
Stress	2.90±.80	1~5
Gambling change motivation	4.38±.90	1~5
Gambling abstinence self-efficacy	3.15±.91	1~4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도박변화동기, 단도박 자기효능감

Table 4에서 일반적 특성 및 도박변수에 따른 스트레스, 도박변화동기, 단도박 자기효능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4. Difference of factor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4)

Variables	Categories	Stress M±SD	Gambling change motivation M±SD	Gambling abstinence M±SD
Gender	male	3.00±.84	4.55±.55	3.16±.87
	female	2.87±.79	4.33±.97	3.15±.92
	t(p)	-.719 (.473)	-1.597 (.114)	-.036 (.972)
School year	Freshman	2.95±.81	4.34±.79	3.02±.87
	2nd	2.72±.62	4.67±.71	3.35±.86
	3rd	2.67±.52	4.53±.59	2.97±.87
	4th	3.07±1.01	4.13±1.30	3.41±1.02
	F(p)	1.369 (.255)	1.732 (.164)	1.820 (.147)

3.5. 스트레스, 도박변화동기, 단도박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

Table 5에서 스트레스(r=-.314, p<.001), 도박변화동기(r=.272, p=.001)는 단도박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도박변화동기가 높을수록 단도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34)

Variables	Stress	Gambling change motivation	Gambling abstinence self-efficacy
Stress	1		
Gambling change motivation	-.082 .346	1	
Gambling abstinence self-efficacy	-.314 .000	.272 .001	1

3.6. 스트레스 및 도박변화동기가 단도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 도박경험자의 단도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도박변화동기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도박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입력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단도박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트레스($\beta=-.29, p<.001$), 도박변화동기($\beta=.25, p=.003$) 순

으로 확인되었다. 회귀식은 유의미하였으며($F=12.25$, $p<.001$), 설명력은 15%였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2.02로 2에 가까워 잔차들 간에 자기 상관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분산팽창인자는 1.01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Factors influencing on gambling abstinence self-efficacy (N=134)

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s	3.03	.47		6.40	<.001	
Stress	-.33	.09	-.29	-3.63	<.001	1.01
Gambling change motivation	.25	.08	.25	3.05	.003	1.01

F=12.25, $p<.001$, Adj $R^2=.15$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 도박경험자의 스트레스와 도박 변화동기가 단도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학생 도박경험자의 도박중독 중재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 도박경험자의 스트레스와 도박변화동기는 단도박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선행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26]. 이는 대학생 도박경험자의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은 도박을 자신의 심리적 불편감 즉,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하여 행동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의 도박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고통이 있더라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스트레스가 위험한 수준에 있는 대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일상생활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들의 스트레스 원인을 규명하고 건전하게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박변화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존선행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24]. 그 이유는 지역과 대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단도박 자기효능감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단도박 자기효능감은 도박 고위험 상황에서 도박을 하지 않는 자신감을 뜻하며 도박을 통해 자아개념에 대한 신뢰,

믿음, 정서적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24]. 이러한 믿음이 없을 경우 도박행동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되어 도박에 대한 유혹을 저항할 수 있는 1:1 멘토링 상담이나 예방적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야 할 것이다. 음주, 담배, 마약 등의 갈망에 대한 절제력이 부족한 학생일수록 도박행위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선행연구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27]. 단도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도박을 중단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 빨리 시도하고, 단도박 유지율도 훨씬 높다는 선행연구가 있다[16,17]. 이와 같이 단도박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 도박경험자는 도박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클 것이고 반대로 단도박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험자는 재발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연구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16].

대학생 도박경험자의 도박변화동기는 도박문제에 대한 방식을 갖고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변화에 대한 동기 부여는 도박으로부터의 회복에 중요한 예측 요소이기 때문에 방식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8,29]. 그래서 도박변화에 대한 동기 확인, 단도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 요인에 대해서 연구 및 조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대학생의 단도박 자기효능감 비교 연구가 아직 미흡하여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도박변화동기 이외의 다양한 변수들을 조사하여 융복합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학생 도박경험자는 자신의 문제를 직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도박변화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박문제로 초래되는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불신,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수용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134명의 대학생 도박경험자의 스트레스, 도박변화동기와 단도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단도박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도박변화동기와 양(+)의 상관을 보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단도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스트레스($\beta=-.293$, $p<.001$), 도박변화동기 ($\beta=.246$, $p=.003$) 순으로 확인되었다. 일회성 도박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이 종종 도박자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학내외의 다양한 기관이 중심이 되어 주기적으로 학업이나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과 도박변화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2개 대학교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수집으로 이루어져 일

반화하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거나, 도박경험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심층면접 등의 정성적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Gallup Korea Research Institute. (2018). *A survey on actual state of use in gambling industry in 2018*. Seoul :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 [2]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2012). *Statistics related to the gambling industry*. Seoul :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 [3]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2018). *Statistics related to the gambling industry in 2017*. Seoul :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 [4] B. S. Kwon & Y. H. Kim. (2011). A Study of gambling addiction and its actual conditions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39, 5-28.
<http://www.riss.kr.proxy.nsu.ac.kr:8010/link?id=A101148464>
- [5] Gallup Korea Research Institute. (2012). *A survey on actual state of use in gambling industry in 2012*. Seoul :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 [6] Gallup Korea Research Institute. (2014). *A survey on actual state of use in gambling industry in 2014*. Seoul :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and Korea Center on Gambling Problem.
- [7] Indiana Prevention Resource Center. (2010). *Alcohol, tobacco and other drug use by indiana children and adolescents*. Bloomington, IN : Institute for Drug Abuse Prevention.
https://iprc.iu.edu/publications/survey/2009/indianaSurvey_2009.pdf
- [8] S. B. Nam & S. J. Lee. (2016). A study on the influence of mindfulness consumption on consumer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addictive buying of sports toto.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25(3), 809-829.
<http://www.riss.kr.proxy.nsu.ac.kr:8010/link?id=A101991612>
- [9] J. H. Choi, Y. M. Yang & S. U. Kim. (2019). Qualitative research on gambling experience of male college students.-Focused on sports Toto-.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3), 44-55.
<http://www.riss.kr.proxy.nsu.ac.kr:8010/link?id=A106096400>
- [10] Y. K. Kim. (2012). Mediatl effects of internet addiction and irrational gambling belief on the association between adolescents' stress and gambling behaviors in present and futur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4(1), 175-195.
<http://www.riss.kr.proxy.nsu.ac.kr:8010/link?id=A100630772>
- [11] S. Y. Kim. (2017).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adaptation, self-esteem and self-control of university students on smartphone addiction.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6), 103-111.
DOI : 10.22156/CS4SMB.2017.7.6.103
- [12] M. S. Kim & S. Y. Yun. (2017). Effects of eating habits and self-efficacy an nursing students' health promotion behavior: in convergence era.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2), 111-117.
<http://www.riss.kr.proxy.nsu.ac.kr:8010/link?id=A103104134>
- [13] L. Sharpe & N. Trarrier. (1993). Towards a cognitive-behavioural theory of problem gambling.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2(3), 407-412.
DOI : 10.1192/bjp.162.3.407
- [14] S. A. Yang. (2017). Convergence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4), 171-183.
DOI : 10.22156/CS4SMB.2017.7.4.171
- [15] J. I. Jang & S. B. Kim. (2014). A survey research on adolescent gambling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level of gambling addiction in Jeju are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2), 113-139.
<http://www.riss.kr.proxy.nsu.ac.kr:8010/link?id=A102952634>
- [16] W. R. Miller & S. Rollnick. (2002). *Motivational interviewing: preparing people to change addictive behavior*. 2nd ed.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428.
- [17] J. A. Hong. (2016). Factors influencing recognition of motivation for change in pathological gambl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5(3), 227-236.
<http://www.riss.kr.proxy.nsu.ac.kr:8010/link?id=A102132203>
- [18] A. Bandura & D. H. Schunk. (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3), 586-598.
DOI : 10.1037/0022-3514.41.3.586
- [19] D. Hodgins, N. Peden & K. Makarchun. (2004). Self efficacy in pathological gambling treatment outcome: Development of a gambling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GASS). *International Gambling Studies*, 4, 99-108.
<http://www.riss.kr.proxy.nsu.ac.kr:8010/link?id=O41468666>

- [20] D. J. Kim. (2017). College students' gambling behavior: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and multiple group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6), 197-208.
DOI : 10.5762/KAIS.2017.18.6.197
- [21] S. Cohen, T. Kamarck & R. Mermelstein. (1983).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385-396.
DOI : 10.2307/2136404
- [22] J. O. Park & Y. S. Seo. (2010). Validation of the perceived stress scale (PSS) on sample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9(3), 611-629.
- [23] W. R. Miller & J. S. Tonigan. (1996). Assessing drinkers' motivation for change: the stages of change readiness and treatment eagerness scales (SOCRATES).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 10, 81-89.
DOI : 10.1037/0893-164X.10.2.81
- [24] K. H. Kim. (2013). *The Stage of Change of Problem Gamblers for Gambling Abstinence, Motivation for Change of Gambling Abstinence, Gambling Cognitive Errors, and Gambling Refusal Self-efficacy*.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Gyeongsan.
- [25] S. Y. Choi, M. Lee, H. K. Kim & E. J. Lee. (2018). Factors predicting depression, gambling abstinence self-efficacy, and motivation for change in problem gambl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diction Psychiatry*, 22(2), 121-127.
<http://www.riss.kr.proxy.nsu.ac.kr:8010/link?id=A105677123>
- [26] S. Y. Choi. (2018). *Factors Affecting Problem Gamblers on Depression, Gambling Abstinence Self-Efficacy, Motivation for Change*. Master's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Incheon.
- [27] H. M. Annis & C. S. Davis. (1988). *Self-efficacy and the Prevention of Alcoholic Relapse: Initial Findings from a Treatment Trial*. New York : Praeger Publishing Company.
- [28] V. Kushnir, A. Godinho, D. C. Hodgins, C. S. Hendershot & J. A. Cunningham. (2016). Gender differences in self-conscious emotions and motivation to quit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32(3), 969-983.
<http://www.riss.kr.proxy.nsu.ac.kr:8010/link?id=069088845>
- [29] L. Evans & P. H. Delfabbo. (2005). Motivators for change and barriers to help-seeking in Australian problem gambler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1(2), 133-155.

<http://www.riss.kr.proxy.nsu.ac.kr:8010/link?id=042488255>

최 정 현(Jung-Hyun Choi)

[정회원]



- 1999년 3월 : 동경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 2002년 8월: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노인간호, 지역사회 간호, 보건교육,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 E-Mail : jhc@nsu.ac.kr

김 정 숙(Jeong-Suk Kim)

[정회원]



- 2018년 8월 : 공주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세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여성간호, 건강증진, 정신건강, 보건학, 간호행정
- E-Mail : nursekim0305@hanmail.net

김 성 의(Seong-Ui Kim)

[정회원]



- 2018년 8월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세경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간호, 정신건강, 호스피스간호, 사회복지
- E-Mail : agape2816@hanmail.net